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표현은 일승도(一乘道란 용어를 풀이한 것이다. 일승(一乘)이란 <법화경>에서 사용하여 유명해졌지만 본래는 초기불교 이래 사용되고 있었다. 초기불교시대에는 일승도 혹은 일행도(一行道란 말을 사용했으며, 일승도 보다는 일행도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 이 말의 원어는 에카야나 마가(ekayana-magga)이며, 'yana'를 수레로 번역하면 수레 승(乘)이란 글자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yana라는 말에는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의미가 있기에 행(行)이나 취(趣)라 번역하기도 한다. 'magga'라는 말은 길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일승도나 일행도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길을 의미한다. 즉 죽은 사람이 해탈이나 열반을 향해 가야 바람직한 길이 된다는 점을 암유(暗示)하고 있다.

초기불교의 이상과 같은 의미를 <법화경>은 유일한 수레라 재해석한다. 대승 중에서도 이것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일한 길인가? <법화경>에선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법화행자가 되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이념적으로 이성과 감성

권24. "유정의 정화, 근심과 슬픔의 초월, 불만과 번뇌의 소멸, 이법에 대한 통달, 그리고 열반의 증득을 위해 이 일승이 있으니 바로 4념처이다"(〈남전대장경〉9).

이상에서 중요한 정보는 일승도 혹은 일행도가 다름 아닌 4념처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4념처관을 수행하면 위엄이 바로고 평등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생노병사 우비고뇌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4념처관을 뒤으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승도 혹은 일행도라 정의한다.

이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승도를 뒤으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인도 전통사회에서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삶의 질곡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미움과 저주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인간들의 세상, 눈물과 웃음이 절절되어 인간의 한 평생을 수놓게 되는 실존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인도인들은 그래서 계급과 순과 빈부의 차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을 초월하는 길은 수행밖에 없다고 믿어왔다. 불교도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가지 가

초기불교시대 '일승도' '일행도'로 표현

4념처관 닦으면 윤회벗고 해탈에 들어

에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증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교리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은 합리성과 논리적 정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사를 겪으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줄 방책을 필요로 했다. 그런 점에서 대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쉬운 수행 방법, 부처님의 설법이 호소력을 잃지 않게 된다. <법화경>은 당시의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실상(實相)이니 일불승이니 하는 고상한 가르침도 있지만 부처님의 덕을 찬송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마음은 내는 것만으로도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기불교시대는 상황이 달랐다. 초기불교 교리는 매우 이론적이며, 합리성을 추구한다. 모든 것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일행도 내지 일승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승도가 있어서 여러 증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 슬픔을 초월하여 번뇌와 불만을 없애게 한다. 이른바 4념처이다"(〈잡아함경>

지 번뇌를 끊고, 각종의 생사를 소진하면 후유(後有)를 받지 않는다". "나의 생은 이미 다했다. 청정한 행이 이미 반듯하게 되었어, 할일을 이미 했다. 스스로 후유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잡아함경>에 나오는 구절들이다. 후유는 뒷날의 존재란 의미이며, 여기서는 윤회하여 받게 되는 삶을 지칭한다.

일행도가 4념처관을 닦는 것이라면 바로 관법을 통해 몸은 청정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감각은 만족할 줄 모르며, 우리들의 마음은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 고정불변의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몸으로 체득하여 실천공행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현실을 직시하며, 그것들을 그런 줄 알고 대처하고 운용하는 지혜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

일행도에 대해 어떤 경전들은 37조도품을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 4념처관은 37조도품을 대표하는 관법으로 지칭된 것이다. 37조도품이란 4념처, 4위단, 4선, 5근, 5력, 7각지, 8정도를 말한다. 결국 이들을 수행하여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본지 삼일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만다스님이 저서 <역사 유리관> 출판 기념회에서 스님들의 축하(사진위)와 회동의 꽃을 받고 있다.

만다스님

지상 백고좌 (통도사 대전포교당 주지)



◇60여년 이상의 인거수행을 도심포교로 회향하고 있는 만다스님.

고통 떠난 자리 극락 번뇌망상 시달리면 지옥

부처가 본디 부처가 아니요, 증생 또한 증생이더니 애써 진리를 찾는다 해도 진리이전의 소시민 못해 물에 젖지 않는 연꽃을 보라 스스로 부처인 것을.

오리가 지구를 돌고 다닌다. 역겨운 모습 미친 삶이 사자의 꼬리를 물었다. 괴로운 모습 증생은 늘 괴로움에 시달리고

증생이 있기에 부처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음과 같이 증생과 부처의 동점수행으로 도는 열린다.(‘팽초의 오도승’ 中)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갈수록 물질문명에 의존하는 것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집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아져 인류의 도덕과 질서가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체면과 예의는 아랑곳없습니다. 사랑과 정마저 말라버리는 현시대는 상대간의 반목과 불신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가지지 않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

적은 스님과 함께 하는 선무도 주말 수련회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난, 맑은 공기 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속에서 내밀한 참나(眞我)의 세계가 열리고 연꽃의 향기가 코끝에 밀려듭니다.

저친 심심에 새로운 활기를 주고 싶은 분, 일상의 나른함과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함월산 골굴사의 '울긋이는 선(禪)의 숨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 * **인제** : 주말 정기 수련회 - 매주 토요일 - 1박 2일
- * **골굴사** : 선무도 대학에서는 정부의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단기 체험수련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토·일요일 - 2박 3일)
- * **대상** : 10세에서 70세까지의 남여, 내 외국인 (초·중·고 청소년도 참가 가능합니다.)
- * **주말 정기회원의 동참금은 3개월 23만원입니다. 단기 체험수련회원의 동참금은 2박 3일에 6만원입니다.**
- * **문의전화** : Tel. 054)744-1689, 745-0246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선무도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신장이전 나폴리 승복 특별사은

승복, 버리시기 아까운 제품을 정성모아 몸에 맞게 고쳐드리겠습니다.

판매 제품 안내

1. 장삼, 가사
2. 두루막, 동방
3. 적삼
4. 모시론(풀안해도 됨)
5. 무명(수제)
6. 면 래투사(풀안해도 됨)
7. 광육
8. 누더기(한국산 순색색)순면
9. 하이콜 (몸에 붙지 않고, 가볍고, 물세탁)
10. 기타제품 (전화수치문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만족할만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나폴리 승복

대표 정용호 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673-3(대구은행 반월당 지하철역 옆)
전화 053)253-8482 / 011-9599-7963

불교의식(범음·범패) 제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중과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열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아래(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원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 정

-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세벽 도량식, 종성법륜, 상단세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예불동정), 산중퇴공, 행진곡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일법 및 조발심 자경문
-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시란절차, 천도, 49제 제공법, 전정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연, 방생의식, 분상 및 맹화 전안법, 예수제예문, 구별시식 등
 - * 제정안법설치법, 명가축원문작성법, 위계, 지의, 전, 작상법
- ▶ **작법반: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계) 회의제전연바라
-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오후 1시~3시(2시간) * 특별강사초빙
- ▶ **사물특강반 내용** : 태정, 경서, 북치는법(천수북, 절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 **속성반**: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 053)955-7725

불가 도인술 전수 수행자 모집

가. 달마 침구술 정체술기 및 교체법 윤기 도인술 불교전래 향공법 전수사 근거에 따라 다양한 술기전수 난치병 불치질환에 특히 적용, 오래된 만성두통측후 귀신병등 병의로 고통받는자 즉시 회복 (천도방법전수)

* 한가지 술기만으로도 명이가 될 수 있는 기회

나. 수행자격 : 신심있는 모든 청신사 청신녀
동 참 금 : 속성 1개월 과정 100만원

▶ **계좌번호** : 농 협 702061-52-052323
국민은행 629-21-0293-427
예금주 : 조 진

여러사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수행하며 노후를 의탁하실 불자님들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연령 50~60세 전후로 신심있는 불자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아래 **여래사**
주지 심묵 법장 합장 (011-245-5467)

습도 테러의 공포에 휩쌓여 인류의 공포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때저래 생각하면 사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 고탈라는 것도 고탈로 받아들이면 들일 수록, 고는 태산처럼 높아져 결국 그 아래서 허덕이는 삶을 벗어나는 힘들 것입니다. 이제대사는 깨달음을 얻은 뒤 '지옥에 떨어지면 모진 고탈과 가시밭 위로 걷기도 하고, 모진 매도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깨치고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유원지에서 노는 것과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극락이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고탈이 떠난 그 자리가 곧 극락입니다. 한결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극락을 수용하면 곧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마저도 떠난 자리가 잡다운 극락이지만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면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금강경에 보면 '머무는데 없이 마음을 내라'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우주의 온갖 삼라만상 현상계 일체의 존재는 끝이 없이 변하여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제경요집>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 집착하여 마음의 통요를 내는 사람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바짝 마른 알은 감들을 사는 물고기와 같으니라. 물은 다 말라가고 내리쪼이는 햇빛은 따가우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열심히 마음 뒤아 열반락에 들자. 생사고해를 다 여이고 해탈의 저 언덕으로 최고 이상향에 도달할 것을 빌어마지 않는 바이다' 마음을 나누 깨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번뇌망상에 시달리던 지옥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심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의 욕심과 집착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자연히 증생도 부처도 없어집니다. 그 세계가 극락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등의 수행법과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도 모두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뜻밖인 것입니다. 어떤 수행이 되었든지 간에 일념으로 정진한다면 깨치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참선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고(苦)로부터 해탈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근원인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사랑의 요소 뿐 아니라 남의 고탈을 나의 고탈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자들은 알음알이로 불교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 문안에 들어서면 알음알이 두지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체 알음알이가 붙지 않는 선이라는 뜻이지요. 자비는 알이알이가 아닌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현실)을 섭취하여, 화사하게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불교의 자비사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연환경의 오염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도 그리

기자가 본 만다 스님

대전지역 포교에 주력해온 만다스님. 스님은 7세인 1945년 전주 위봉사에서 우당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했으며,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강원을 졸업한 뒤 지리산 청암봉자락 칠선계곡 합죽굴에 토굴을 마련하고, 철야 용맹정진을 하는 등 50여년간 전국 제방에서 수선 안거한 스님이 얻은 깨달음의 골자는 '부처와 중생이 틀어 아니다.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 그때부터 '일생을 중생과 더불어 살기'를 발원하며, 사바세계에 머물며 꽃을 피우고

있다. 통도사 대전포교당이 신도교육, 청소년 포교,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것도 만다 스님의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보문산일대 10년 성역화불사 내년 입재

91년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한 대전 중구 유원동에 공공건물 1층을 빌려 통도사 대전포교당 무성사를 개원했다. 이어 94년 통도사대전불교대학을 설립해 졸업생 1천여 명을 배출했다. 또 2000년 사단법인 대전청소년

청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더러운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처럼, 주위를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번뇌를 일으켜 주위를 오염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마음 올바르게 뒤아 자신과 주위를 맑게 하고 밝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종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야 끝맛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 칭찬받겠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집을 구하고 물집을 구하고... 원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고탈은 큼니다. 인간의 삶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집착하고, 내 것이라 하고 상을 낼 것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세상은 갑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도 갑니다. 갈 때는 다 놓고 가지요. 살아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 잠시 빌려쓰는 것에 불과하지요. 빌려왔으면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는 육신, 부모 자식의 관계도 모두 스쳐지나가는바람일 뿐입니다. 내 것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마음에 무소유의 뜻을 새겨 탐욕에서 벗어나 출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간혹 일만 사람들을 만나면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 대해서는 캄캄하지요. 부처님의 인연법을 알고 마음공부하면 전생을 알고, 내생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현재의 결과를 보고,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현재의 원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살아생전에 선업을 쌓으면 죽어서도 고탈이 없는 안락한 세계에 환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것이 생이고, 생자체가 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생 불멸이지요. 이 세상에 내가 나온 것은 저 세상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다음 생에서 그 공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묻지마오. 나온 곳 없어 여래야오. 어디로 가느냐 묻지마오.

우주가 한 집인데 따로 갈 것 무어 있소.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오고 감은 쓸데없는 순서 태초부터 끝없는 끝까지 그냥 이대로 마문다오. (‘어디서 왔오냐’ 卞)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진명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도림스님

앞에서 보면 이마와 머리의 경계가 없는 스님이다. 아직은 짧은데도 조사 어록에 나오는 선사 스님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를 가졌다. 자상한 노장님 같은 캐릭터 말이다. 작으마한 체구지만 조계사 도랑을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넓고 큰 스님이다. 요즘 조계사 총무 소임을 보고 있는 도림(鎭林)스님. 깊은 산속 암자에서 여여하게 마음 챙기는 노장님 같은 도림스님이다. 마음 발을 일구듯이 그렇게 조계사 큰 도랑을 살피고 있다. 도림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같은 학번으로 함께 공부한 스님이다. 일찍 출가해서 강원을 졸업하고 제법선원에서 정진하다가 다시 체계적인 학문을 하기 위해 산문을 나섰다. 때늦은 만학이라 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했다. 공부하느라 힘들어서는 아니겠지만 점점 이마의 면적이 넓어져갔다. 함께 앉아 토론이라도 할라치면 꼭 없어져가는 머리카락을 한 번씩 쓰다듬고 시작한다. 삭발하는 날은 매만질 머리카락이 그마저



그림·문병성

도 없지만, 그럴 때면 도반들이 "도림스님 큰일 님네. 왜 그렇게 속살머리는 없어지고 주변머리만 남아 있습니까. 참말로 눈이 부십니다" 라고 우스게 소리를 하면 호탕하게 웃어넘기곤 했다. 언뜻 개인적인 일 보다는 대중을 먼저 생각하고 도반들의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소리 없이 챙기곤 하는 것은 몇 년간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다. 도반스님 중에 누군가가 상을 당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 주고, 작은 포교당이라도 개원을 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며 도반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솔선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귀찮은 노릇이다. 허나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한다. 씨익 웃으면서 넌지시 건네는 마음의 손길이 참 따뜻한 스님이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어쩌다 귀국해서 도반들을 만나면 열망없이 놀림을 당한다. "까말게 그렇고요 아연 체적이 어쩌면 그렇게 중국스님을 연상케 하느냐고, 중국 스님 다 되어 간다" 고 바라보고 웃곤 했다. 어렵게 유학을 하면서도 도반들

이 얼마 안되지만 학비를 보태려고 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도반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그 도반을 위해서 사양하곤 했다. 공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스님 중에 스님이다. 수행자로서의 중심축이 깨끗한 신심의 바탕위에 굳게 뿌리하고 있는 모습을 스님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도림스님은 불가와 많은 인연을 지어 온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다. 집안에서 가족이 한 명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면 구족이 생겼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도림스님을 중심으로 위로 형님과 아래로 동생, 삼형제가 출가해서 때론 좋은 선지식으로 또 든든한 도반으로 수행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싶다. 동산악회 회장의 어머니처럼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지를 가슴으로 썼을까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아마 지금쯤은 그보다 더한 부자가 없을 것이다.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 아닌가. 한 명 출가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삼형제가 스님이 되다니 어찌 환희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인연법으로 보자면 지중한 인연임에 틀림이 없다. 어쩌면 전세계 삼형제가 서로의 마음을 그릇을 키우고 탁마하던 좋은 도반이었을까? 적당한 거리에서 변함없이 산을 지키고 서 있는 크고 작은

3형제 출가, 서로에게 좋은 도반

누구는 친절히 대해...매사 긍정적인

소나무 세 그루를 보는 듯 하다. 아마 도림스님에게 요즘 주어진 소임은 수행 기간 중에 자신의 수행여정을 다져가는 좋은 시간일 것이다. 종무 행정을 익히고 기림수호 하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살피는 그 소임은 공부 중에 공부할 것이다. 도랑도 살펴야 하고, 불교대학 강의도 해야 하고, 불자들의 회노예락에 얽힌 인생 여정도 들어 주어야 한다. 불자들이 아무리 하찮은 일로 상담을 청해 와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어린 종무원일지라도 의견을 존중한다. 일을 하다 종무원이 잘못을 하더라도 무색하게 아단하지 않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라며 다독여 준다. 어느 종무원의 말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선비 같은 스님'이란다.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스님" 이라고 덧붙인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나는 일도 있을 터인데 화를 내거나 큰소리로 말하는 법이 없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중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종무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존경심은 상대방의 삼업에서 우러나는 향기에서 반영되는 메아리와 같을 것이다. 사람의 향기가 있는 스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출가하여서는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님 전에 감사하고



소남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님 전에 감사함을 간직하였으며 출가하여서는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였으며 승려로서 수행과 정진을 하면서는 여러 인연 불자들에게서 물심양면으로 공양하신 음덕에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며 기도 축원하였습니다.

부처님 해명을 받들어 전법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는 동안 세월이 흘러 소남도 육순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기도 중에 밝아오는 여명으로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전, 부처님 전, 시주님 전에 더 늦기 전에 보은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처님 말씀 중에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은 세상을 살면서 병고액난으로 고탈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길잡이가 될 것이며 「생전에수재 참회의 공덕」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인연 불자들에게 생전의 업장을 소멸케 하고 명부의 세계에서 고탈을 면하게 해야 되겠다는다는 소남의 성심 어린 정성 발원으로 이 두권의 책을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편역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씩 읽어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건강한 육체와 마음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하여 불국정토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유교제자 만 다 합장



만 다 편역 / 문예마당 펴냄 / 13,000원



만 다 편역 / 문예마당 펴냄 / 10,000원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

약사경 · 藥師經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어렵고 고탈스러운 것은 병마가 침입하여 고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축을 받아 중생들의 무병장수를 서원하며 성불하신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의 위신력을 담았습니다.

12가지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약사유리광여래의 행적을 찾아 경전을 읽을 때마다 중생들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을 예경하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예송하며 믿고 실천함은 필경 자신의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므로, 일체 병고액난을 해탈하는 한량없는 무량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참 · 사 · 탐 · 의 · 아 · 림 · 다 · 온 · 회 · 향

생전에수재(生前豫修齋) 참회의 공덕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에만 크게 집착하였지 생을 마감하고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려 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태어나면 가야만 하는 길이 저승길입니다. 그렇다면 명부 열사왕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책 속에서 그 의문의 세계를 만나보고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후이신 마야 왕비께서 지옥중생을 구제하시는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의 사후세계를 열려하시어 상세하게 해문하시는 과정을 읽으신 후 과연 '생전에수재'를 올리는 공덕이 내에게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보시용으로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찰에서 다량으로 법보시 하시면 할인가능 합니다.